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와 사도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15장으로 보임(다음 장이 16장). 약 169~186쪽(본문의 쪽 표시는 170~186).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흔한 생각 하나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은 완전하지만, 사람 입을 거치면 불완전해진다”는 생각이다. 그는 신명기 18장, 출애굽기 4장, 예레미야 1장을 근거로 답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신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권능, 권위, 임재를 가진다. 이 원리는 노아부터 신약 교회의 선지자까지 이어진다.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사도들에게서 가장 분명해진다. 이어서 프레임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가리는지 묻는다. 신명기 18장의 시험, 기적, 그리고 요나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예언'의 문제를 차례로 다룬다. 결론은 이렇다. 겉으로 보이는 표지는 도움이 되지만, 마지막 확신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스스로를 증언하실 때 온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여덟 절로 나눴다.)

📜 1. 문제 제기: 사람 입을 거치면 말씀이 약해지는가

많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음성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말씀이 사람 입술을 거치면 불완전함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프레임은 이미 12장에서 이 생각에 답했다. 계시에 인간적 특성이 있어도 신적 특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적 요소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도 사람의 언어로 들려왔다. 그래도 그 음성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선지자를

달라고 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에서 이 요청을 받아 주시고, 점술을 금하는 대신 “모세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신다. 여기서 선지자의 정의가 나온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신 사람이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완전한 권위를 가진다.

1. 사람 입을 거치면 틀린다는 생각이 이 장의 출발점
2. 인간적 특성은 신적 특성을 깎지 않는다
3. 선지자 =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두신 사람
4.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5. '듣다'는 순종하며 듣는다는 뜻(각주)

> **출애굽기 20:19**
> 이스라엘이 직접 음성 대신 모세의 중개를 요청한 장면
>
>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 **신명기 18:9-14**
> 이방 점술을 금하심. “그럼 하나님 뜻은 어디서 듣나?”라는 질문이 생긴다
>
>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신명기 18:18**
>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의 정의,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
>
>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신명기 18:19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심. 완전한 권위

>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14

(각주)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라. '듣다'가 순종적 청종임을 보여 줌

>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2. 모세와 예레미야: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두신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며 물러선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물으시고, 그의 입과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신다. 모세가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은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모세→아론→백성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생긴다. 이 순서를 따라 내려가도 전달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다. 세 단계 어디에서도 권위가 줄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과 “함께” 계시니 임재도 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도 같은 언어를 쓴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며 자기 부족함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 입에 손을 대고 말씀을 두신다. 그리고 나라들을 뽑고 세우는 권능을 주신다. 여기서는 권위보다 권능이 강조되지만, 둘은 떼어 놓을 수 없다.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이 자기 말을 지켜 반드시 이루신다는 표다.

1.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자기 완전함으로 채우심
2. 하나님→모세→아론→백성, 권위는 줄지 않음
3. 모세가 “하나님 같이” = 하나님 말을 전하는 역할

출애굽기 3:7-22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애굽에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심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

출애굽기 4:10

모세의 핑계(“말이 어눌함”). 인간의 부족함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11-12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치심.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다스리심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3-16

아론을 세우심. 서열이 생겨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같이 되리라”

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7:1-2

(각주)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심. 같은 사고의 배경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시편 82:6, 요한복음 10:34-35

(각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부름

시편 82: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요한복음 10:34-35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레미야 1:4-9

부르심, “나는 아이라”, 입에 말씀을 두심

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예레미야 1:10

나라를 뽑고 세우는 권능. 하나님만 가진 능력을 선지자의 말이 가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11-12

살구나무 환상. 하나님이 자기 말을 지켜 이루심(히브리어 말장난, 각주)

1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 3.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의 공인된 대리인이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직접 음성보다 덜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권위나 권능이 덜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백성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구름 속에서 그와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했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언약의 조건과 함께 가르쳤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약속한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아니라 모세의 입에서 들은 것이었다. 예수님도 모세의 글의 권위를 인정하신다. 모세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고 하신다. 그러니 모세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의 전제 조건이다. 프레임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비판할 수 없다면 예언의 말씀도 비판할 수 없다. 화자의 인간적 특성이나 죄성이 메시지에 오류를 넣지 않는다. 그 방법은 기적적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한다.

1. 직접 음성보다 덜 무서워도 권위는 같다
2. 이스라엘이 순종한 말씀 대부분은 모세의 입에서 왔다
3. 예수님이 모세의 글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5. 선지자의 죄성이 말씀에 오류를 넣지 않는다

출애굽기 19:9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게 하심.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신명기 1:3

모세가 전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신명기 4:1-8

모세의 가르침에 복과 저주라는 언약의 조건이 붙어 있음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

신명기 5:1, 22-33; 6:1-9

모세의 법령이 곧 하나님의 법령

신명기 5: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5:22-33 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24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25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27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

신명기 6:1-9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요한복음 5:45-47

예수님이 모세의 글을 옹호하심. 모세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제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6:29-31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음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4. 모세 앞뒤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교회의 선지자들

모세는 선지자의 본보기다. 하지만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다. 노아는 아들들의 미래를 수백 년 앞서 말했다. 이삭과 야곱의 축복도 예언이었다. 이 말들이 미래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 주든, 미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주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다. 엘리야의 말은 비를 그치게 하는 권능을 가졌다. 이사야는 입술을 정결하게 받았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힘을 받았다. 신약 교회에도 남녀 선지자가 많았다. 그들은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며 미래를 예고하고, 성령의 지시를 전하고, 성도를 격려했다. 프레임은 이 신약 선지자들을 구약 선지자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신약에는 선지자 직분이 바뀌었다는 암시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반대 입장도 있다. 웨인 그루뎀은 신약 예언이 구약 예언보다 권위가 낮다고 본다(다만 사도의 말은 최고 권위라고 인정한다). 프레임도 신약에는 신명기 18장처럼 예언의 은사를 정의하는 구절이 따로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1. 노아, 이삭, 야곱, 엘리야, 이사야도 선지자
2. 미래를 아는 지식이든 일으키는 권능이든 하나님 말씀
3. 신약 교회에 남녀 선지자가 많았다

5. 그루뎀은 신약 예언의 권위가 낮다고 봄(각주)

창세기 9:24-27

노아가 셈, 야벳, 가나안의 미래를 예언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27:27-29, 39-40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예언

창세기 27:27-29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39-40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49:1-27

야곱의 마지막 축복도 예언

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

열왕기상 17:1-2

엘리야의 말에 비를 멈추는 권능.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함

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6:5-7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심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9-10

그의 말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권능을 받음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마태복음 13:14-15, 마가복음 4:12, 누가복음 8:10, 사도행전 28:26-27

마태복음 13:14-15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4: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8: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8:26-27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요엘 2:28-32, 사도행전 2:17-18

남녀 모두 예언하리라. 신약 선지자의 등장

요엘 2:28-32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17-18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11:27-28; 21:9-14

신약 선지자가 미래를 예고

사도행전 11:27-28 [27]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 21:9-14 [9]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13:1-3

성령의 지시를 받음

[1]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5:32

성도를 격려하고 굳게 함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영적 은사를 확인(또는 사역을 예언, 각주). 어느 쪽이든 초자연적 지식

디모데전서 1: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4: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요한계시록 11:3-13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

고린도전서 14:1-40

공예배에서 통역 없는 방언보다 예언을 중시. 회중의 덕을 세움

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

요한계시록 1:3; 22:7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19:6, 로마서 12:6, 고린도전서 11:4-5; 12:10, 데살로니가전서 5:20

예언 은사를 따로 설명 없이 언급하는 구절들

사도행전 19: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로마서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고린도전서 11:4-5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고린도전서 12: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신약은 선지자보다 사도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한다. 사도는 구약 선지자의 참된 계승자이고 그 이상이다. 바울도 교회 직분 목록에서 사도를 선지자보다 앞에 둔다. 예수님은 박해받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때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에서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로 이끌고, 장래 일을 알리겠다고 약속하신다. 과거(예수님의 말씀), 현재(모든 진리), 미래(장래 일)에 대한 계시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셨지만 책은 한 권도 쓰지 않으셨다. “승천하신 뒤 그 말씀을 어디서 찾느냐”는 긴급한 질문이 생긴다. 답은 사도들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은 즉시 그리스도를 전했다. 방언은 바벨의 저주를 부분적으로 되돌려 사람들을 말씀 아래 모았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움직인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아마 그의 가르침에 반대한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받았다. 반대자들조차 그 호칭을 인정했다.

1. 사도는 선지자의 계승자이자 그 이상
2. 성령이 사도의 기억·진리·미래 계시를 맡으심
3.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음 → 말씀은 사도에게
4. 오순절: 성령과 말씀은 함께 움직인다
5. 바울: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받음

> **고린도전서 12:28**
>
> (각주) 사도가 선지자보다 앞선 순서
>
>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 **마태복음 10:19-20**
>
> 박해 때 성령이 사도 안에서 말씀하심. 비상한 말씀의 은사
>
>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마태복음 10:40-41

사도를 선지자처럼 영접해야 함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14:26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과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26-27

성령과 사도가 함께 예수님을 증언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13

모든 진리로 인도(현재), 장래 일을 알림(미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6:68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4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창세기 11:1-9

바벨. 오순절 방언이 이 저주를 부분적으로 되돌림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사도행전 4:8, 31; 6:3-5; 7:55-56; 9:17-20; 13:9-10

성령 충만과 말씀 선포가 함께 나오는 장면들

사도행전 4: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3-5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사도행전 7:55-56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도행전 9:17-20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13:9-10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5:8-9

바울이 스스로를 “가장 작은 사도”라 부름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행전 1:22

사도의 조건은 부활의 증인.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로마서 1:1, 갈라디아서 1:1, 12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

로마서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9:1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반대자들도 아는 호칭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을 찾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사도들이다."

📜 6. 사도들 스스로 말하는 메시지의 출처

사도들도 자기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낸다고 말한다. 어둠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도 전체를 대표해 말한다. 성령은 깨달음만 주시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칠 '말'까지 주신다. 바울은 자기 권면의 근거로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지식의 근거로도 성령을 내세운다. 신약의 '비밀'은 오늘날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래 감춰졌다가 이제 사도의 설교와 글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론은 이렇다. 사도들은 선지자처럼 말로 된 계시를 받아 전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의 세 속성, 곧 권능, 권위, 임재를 그대로 가진다.

1.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닌 계시
2. 성령은 깨달음과 함께 '말'까지 주신다

4. 사도의 말 = 하나님의 말씀(데살로니가전서 2:13)

5. 권능·권위·임재 어느 것도 줄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1-6

사도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음. 하나님이 마음에 빛을 비추심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11-12

복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음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2

바울의 행보도 계시를 따름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10-13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말할 언어도 가르치심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40

바울이 권면의 근거로 성령을 내세움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에베소서 3:3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됨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4:1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6:25-26

비밀은 오래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난 것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사도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로마서 1:16-17

사도가 전한 복음의 권능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1:9

다른 복음은 저주받음. 사도적 말씀의 권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5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말씀 속 하나님의 임재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 7. 참과 거짓을 어떻게 가리나: 신명기 18장과 기적

14장에서 던진 질문이 다시 나온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프레임의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뿐

궁극적 확신은 초자연적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시험 기준도 준다. 신명기 18장은 거짓 선지자의 확실한 표지 두 가지를 말한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는 첫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로 새 언약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표지는 거짓을 걸러내는 기준이다. 참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것만으로 참 선지자가 되는가? 예언을 전혀 하지 않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는가? 신명기 18장은 이런 경우를 모두 다루지 않는다. 기적도 비슷하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바울의 사역에는 표적이 따랐다. 하지만 많은 선지자에게는 기적 기록이 없다. 사탄도 표적을 흉내 낸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다. 기적과 예언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 주는 경고등이다. 참 선지자를 가리는 궁극적 기준은 아니다.

1. 하나님은 확신시키는 일에도 주권적이시다
2. 거짓 표지 둘: 다른 신의 이름, 불성취
3. 이 표지는 거짓을 거르지만 참을 보증하진 않는다
4. 기적 없는 선지자도 많고, 사탄도 표적을 흉내 낸다
5. 기적은 경고등이지 궁극적 잣대가 아니다

> **예레미야 14:14, 예레미야애가 2:14, 마태복음 7:15, 고린도후서 11:13, 요한계시록 2:2**
>
>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가 실제로 있음
>
> **예레미야 14: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
> **예레미야애가 2: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
> **마태복음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고린도후서 11: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의 설득력은 성령에게서 옴. 확신은 초자연적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신명기 18:20-22

거짓 선지자의 두 표지: 다른 신의 이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요한일서 4:2-3, 6

(각주) 첫째 표지를 새 언약에 적용. 육체로 오신 예수와 사도적 증언 전체를 인정하는가

요한일서 4:2-3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12:12

"사도의 표." 기적이 사역을 확증한 경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도 큰 표적을 행함. 기적만으로는 판별 불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12:38-39; 16:1-4

예수님이 표적 요구를 꾸짖으심

마태복음 12:38-39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1-4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누가복음 16:31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활을 봐도 믿지 않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설득의 영이다.”

📜 8.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요나와 언약의 조건, 그리고 성령의 확신

참 예언이 신명기 18:22를 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요나는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다.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다. 이것은 요나 개인의 인간적 한계 때문이 아니다. 본문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다룬다. 요나가 거짓이면 하나님도 거짓이 된다. 성경은 이런 '뜻을 돌이키심'을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형적 방식으로 본다. 니느웨 왕이 그 가능성을 보고 회개를 촉구했다. 요나는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 성품 고백을 인용하며 바로 이것 때문에 도망쳤다고 말한다. 예레미야 18장은 이것을 일반 원칙으로 선언한다. 프레임은 여기서 리처드 프랫의 논문에 기댄다.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검사와 같다. 청중은 심판 예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깔려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고 예언이 무의미해지지는 않는다. 예언은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를 정해 주기 때문이다. 맹세로 못 박은 예언도 있다. 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징조나 엘리야의 가뭄 예언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구체적 예언도 있다. 이런 예언은 선지자의 신임장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다만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은 부차적이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가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언약에 대한 이해, 청중의 상황에 대한 이해, 영적 성숙과 공동체의 분별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진다.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참 예언의 표지를 보게 하신다. 그리고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 하나님의 스스로 증언하는 음성을 알아보게 하신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말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다.

1. 요나의 불성취는 요나의 실수가 아니다
2. '뜻을 돌이키심'은 하나님의 전형적 방식이다
3. 심판 예언엔 “회개하지 않으면”이 깔려 있다

5. 최종 확신은 성령의 자증으로 온다

요나 3: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예언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3:6-9

왕과 성의 회개.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가능성을 기대함

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7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 3:10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심.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다룸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1-2

요나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전형적 성품으로 고백

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인용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예레미야 18:5-10

토기장이 비유. 회개하면 재앙을, 악하면 복을 돌이키신다는 일반 원칙

5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출애굽기 32:9-14, 요엘 2:13, 아모스 7:1-6

같은 원칙이 드러난 사례

출애굽기 32:9-14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엘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모스 7:1-6 1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38:1-5, 예레미야 26:3, 13, 19; 42:10

함께 볼 사례(히스기야의 연장된 생명 등)

이사야 38:1-5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예레미야 26:3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예레미야 26:13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26:19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42:10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모스 4:2; 6:8; 8:7

하나님의 맹세가 결과의 가능성을 좁히는 경우

아모스 4:2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모스 6: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8:7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11:11

회개로 피할 가능성을 하나님이 막으신 경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사울에게 준 구체적 징조가 그날 다 이루어짐. 선지자 직분의 확증

사무엘상 10:1-7 [1]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4]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

사무엘상 10: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열왕기상 17:1

엘리야의 가뭄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4:29

예언은 다른 이들이 분별해야 함. 성숙과 공동체의 판단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이다.

불오(불오성)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거나 틀리지 않으며, 틀릴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 장은 그 성질이 선지자와 사도의 입을 거쳐도 그대로라고 말한다.

선지자(대언자·예언자)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두신 사람이다. 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고(대언자, forthteller), 부차적으로 미래를 미리 말한다(예언자, foreteller).

사도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받아 그분의 말씀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프레임은 선지자의 계승자이자 그 이상으로 본다.

프레임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성질로 꼽는 세 가지다. 말씀은 일을 이루는 힘이 있고, 순종을 요구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언약적 제재
언약에 붙은 조건이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

언약 소송
언약을 어긴 백성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림이다. 선지자는 그 소송을 맡은 검사처럼 회개를 촉구한다.

역사적 우발 사건
예언 뒤에 일어나는 사람의 반응(회개 등)이다. 예언된 일이 그대로 일어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밀(신약의 '미스테리온')
오래 감춰졌다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자증(自證)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성령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게 하신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신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입술로 옮겨 가도 권능, 권위, 임재는 하나도 줄지

- 신명기 18장의 표지와 기적은 분별을 돕는다. 하지만 거짓을 거를 뿐 참을 완전히 보증하지는 못한다. 예언은 언약의 조건 속에서 읽어야 한다.
- 결국 참 말씀을 알아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일에도, 그것을 확신시키시는 일에도 주권적이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4편 ·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 사건, 음성, 선지자와 사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